

2010. 9. 30 (Vol. 6)

2010년 8월 관광동향분석

Korea Tourism Statistics

01 방한외래관광객



02 국민해외관광객



03 관광수지



04 세부 통계분석



05 서비스업 생산지수



06 최신 참고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01

방한외래관광객

- 8월 방한외래관광객 833,693명, 전년동기대비 19.8% 증가
- 2010년 8월까지 방한외래관광객 누계 약 574만 명, 전년동기대비 12.7% 증가



단위: 명, %

구분	방한외래관광객	증감률 *
2005년	6,022,752	3.5
2006년	6,155,046	2.2
2007년	6,448,240	4.8
2008년	6,890,841	6.9
2009년	7,817,533	13.4
2010년 8월	833,693	19.8
2010년 누계	5,744,778	12.7

주 | 2009년 이후는 잠정치, * 전년동기대비

〈최근 3개년 방한외래관광객 수 변화 그래프〉



주요 국가별 동향

- 일본 방한외래관광객 2010년 누계 약 195만 명, 전년동기대비 2.7% 감소
- 8월 중국 방한외래관광객 전년동기대비 50.8% 증가

단위: 천 명, %

구분	일본	중국	미국	대만	홍콩	필리핀	러시아
2005년	2,440(-0.1)	710(13.2)	531(3.8)	351(15.3)	166(7.2)	223(4.3)	144(-8.3)
2006년	2,339(-4.1)	897(26.3)	556(4.7)	338(-3.8)	143(-14.1)	248(11.5)	145(0.5)
2007년	2,236(-4.4)	1,069(19.2)	587(5.7)	335(-0.9)	140(-1.9)	264(6.3)	140(-2.9)
2008년	2,378(6.4)	1,168(9.3)	610(3.9)	320(-4.5)	160(14.4)	277(4.9)	136(-2.9)
2009년	3,053(28.4)	1,342(14.9)	611(0.2)	380(18.9)	216(34.6)	272(-1.7)	137(0.5)
2010년 8월	262(5.7)	242(50.8)	56(0.9)	38(1.2)	21(9.7)	26(12.0)	13(28.3)
2010년 누계	1,948(-2.7)	1,262(44.6)	438(5.7)	275(2.5)	151(7.8)	202(10.8)	99(10.6)

주 | 2009년 이후는 잠정치, (%)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주요 대륙별 동향

- 아시아주 방한외래관광객 2010년 누계 약 445만 명, 전년동기대비 12.6% 증가
- 8월 아시아주(21.6%), 구주(17.2%), 아프리카주(17.2%)의 증가세가 두드러짐

단위: 천 명, %

구분	아시아주	미주	구주	대양주	아프리카주
2005년	4,488(4.1)	640(4.8)	509(2.2)	85(9.3)	18(1.5)
2006년	4,605(2.6)	673(5.2)	535(5.1)	92(7.4)	21(16.1)
2007년	4,747(3.1)	716(6.4)	559(4.6)	108(17.8)	24(12.0)
2008년	5,092(7.3)	745(3.9)	592(5.9)	128(18.3)	26(10.9)
2009년	6,075(19.3)	752(1.0)	598(0.9)	130(2.3)	29(8.7)
2010년 8월	662(21.6)	72(2.6)	58(17.2)	12(11.2)	3(17.2)
2010년 누계	4,448(12.6)	544(7.1)	424(6.8)	97(21.1)	22(18.3)

주 | 2009년 이후는 잠정치, (%)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02

국민해외관광객

- 8월 국민해외관광객은 1,235,742명, 전년동기대비 18.7% 증가
- 2010년 8월까지 국민해외관광객 누계 약 839만 명, 전년동기대비 28.9%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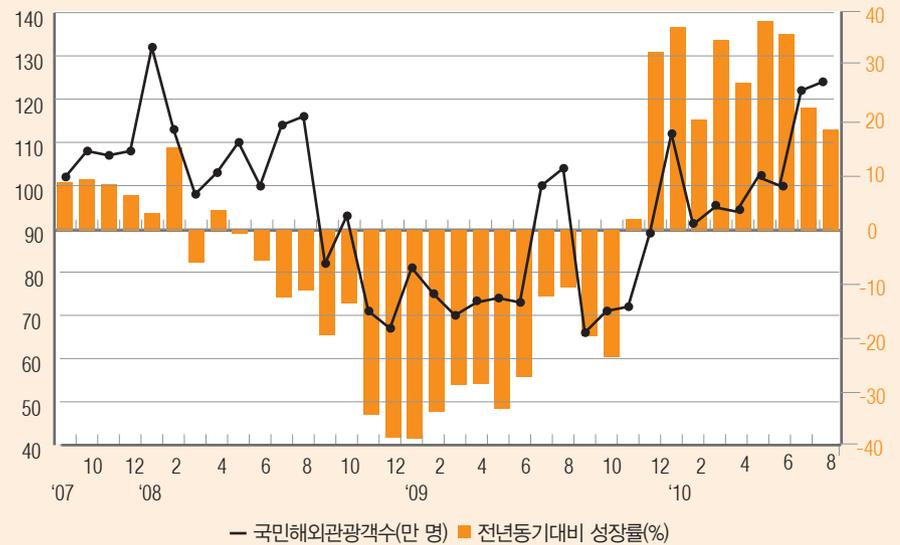


〈최근 3개년 국민해외관광객 수 변화 그래프〉

단위 : 명, %

구분	국민해외관광객	증감률 *
2005년	10,080,143	14.2
2006년	11,609,879	15.2
2007년	13,324,977	14.8
2008년	11,996,094	-10.0
2009년	9,494,111	-20.9
2010년 8월	1,235,742	18.7
2010년 누계	8,393,330	28.9

주 | 2009년 이후는 잠정치, * 전년동기대비



03

관광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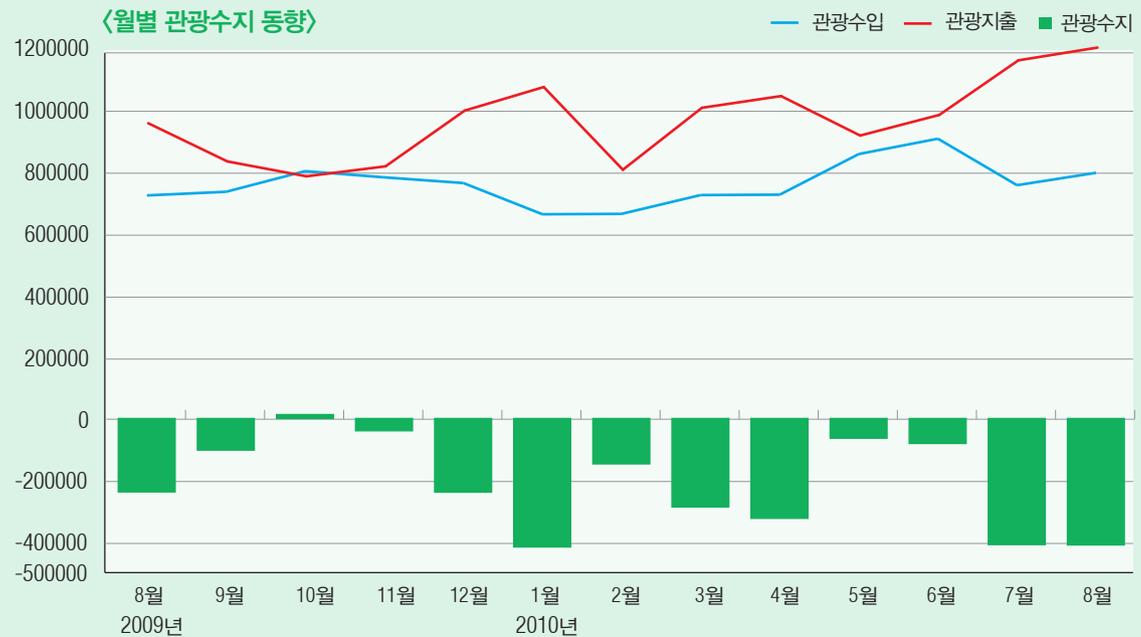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관광수입	*인당 관광수입(\$)	관광지출	*인당 관광지출(\$)	관광수지	유학수지
2005년	5,793 (-4.3)	962	12,025 (22.0)	1,193	-6,232	-3,368
2006년	5,760 (-0.6)	936	14,338 (19.2)	1,235	-8,576	-4,487
2007년	6,094 (5.8)	945	16,950 (18.2)	1,272	-10,857	-4,980
2008년	9,719 (59.5)	1,410	14,581 (-14.0)	1,215	-4,862	-4,430
2009년	9,386 (-3.4)	1,201	9,331 (-36.0)	983	56	-3,943
2010년 8월	794 (10.1)	952	1,202 (25.5)	949	-408	-544
2010년 누계	6,071 (-3.9)	1,063*	8,201 (39.2)	979*	-2,130	-2,992

주 | 2009년 이후는 잠정치, (%)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인당 관광수입 = 관광수입/방한 외래관광객, *인당 관광지출 = 관광지출/국민 해외관광객

〈월별 관광수지 동향〉



04

1) 입국자 교차분석

세부 통계분석

일본, 중국, 미국 등 주요국 외국인 입국자에 대하여 연령별, 성별, 목적별, 교통수단별 비중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cross tabulation)을 실시



● **연령별**로 보면, 일본은 상대적으로 50대 이상의 방문자가 많고 중국은 50대 이상의 방문자가 적은 대신 20대 방문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미국은 30대 방문자의 비율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

- X^2 독립성 검증에 의하면 3개 국가간의 분포 사이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X^2 11,579.46, p값 0.000)

- 분할계수(contingency coefficient)에 의하면 국적과 연령간의 관계는 낮은 정도라 할 수 있음

(0.147, p값 0.000)

국적 · 연령 교차분석표 (8월)

구분		연령							합계	
		10 이하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 이상
일본	관측빈도	9,465	30,282	53,022	44,146	51,803	43,326	21,406	5,944	259,394
	기대빈도	10,860.8	29,027.1	59,819.0	49,403.4	51,631.2	36,582.5	17,220.6	4,849.4	259,394
중국	관측빈도	9,100	24,411	55,075	47,518	42,755	22,227	9,669	2,821	213,576
	기대빈도	8,942.4	23,899.9	49,252.9	40,677.0	42,511.3	30,120.8	14,178.8	3,992.8	213,576
미국	관측빈도	3,417	4,057	12,975	8,327	9,942	8,489	3,779	1,050	52,036
	기대빈도	2,178.7	5,823.0	12,000.1	9,910.6	10,357.5	7,338.7	3,454.6	972.8	52,036
합계	관측빈도	21,982	58,750	121,072	99,991	104,500	74,042	34,854	9,815	525,006
	기대빈도	21,982	58,750	121,072	99,991	104,500	74,042	34,854	9,815	525,006

주1 기대빈도(expected count)는 두변수가 서로 독립적인 경우 기대되는 정도

● **성별**로 보면, 일본은 상대적으로 여성 방문자의 비율이 높고 미국은 남성 방문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X^2 독립성 검증에 의하면 3개 국가간의 분포 사이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X^2 5,884.01, p값 0.000)

- 분할계수에 의하면 국적과 성별간의 관계는 낮은 정도라 할 수 있음

(0.105, p값 0.000)

국적 · 성별 교차분석표 (8월)

구분		성별		합계
		남	여	
일본	관측빈도	109,540	149,854	259,394
	기대빈도	117,789.2	141,604.8	259,394
중국	관측빈도	97,345	116,231	213,576
	기대빈도	96,983.5	116,592.5	213,576
미국	관측빈도	31,517	20,519	52,036
	기대빈도	23,629.2	28,406.8	52,036
합계	관측빈도	238,402	286,604	525,006
	기대빈도	238,402	286,604	525,006

1) 입국자 교차분석

- **목적별**로 보면, 일본은 상대적으로 관광 목적의 방문자가 높고 중국은 상용, 유학연수 목적의 방문자 비율이 높으며 공용 목적의 방문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X^2 독립성 검증에 의하면 3개 국가간의 분포 사이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X^2 133,331.35, p값 0.000)
 - 분할계수에 의하면 국적과 연령간의 관계는 중간정도라 할 수 있음 (0.438, p값 0.000)

국적 · 목적 교차분석표 (8월)

구분		목적					합계
		관광	상용	공용	유학연수	기타	
일본	관측빈도	254,178	1,616	103	1,238	5,022	262,157
	기대빈도	202,061.0	6,476.7	1,034.6	13,201.8	39,382.9	262,157
중국	관측빈도	142,180	11,049	232	26,427	62,099	241,987
	기대빈도	186,514.7	5,978.4	955.0	12,186.1	36,352.8	241,987
미국	관측빈도	35,671	1,183	1,877	562	17,084	56,377
	기대빈도	43,453.3	1,392.8	222.5	2,839.1	8,469.3	56,377
합계	관측빈도	432,029	13,848	2,212	28,227	84,205	560,521
	기대빈도	432,029	13,848	2,212	28,227	84,205	560,521

- **교통수단별**로 보면, 일본은 상대적으로 김포공항의 이용 비율이 높고 제주공항, 인천항 이용 비율이 높으며 미국은 인천공항의 이용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X^2 독립성 검증에 의하면 3개 국가간의 분포 사이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X^2 145,189.03, p값 0.000)
 - 분할계수에 의하면 국적과 연령간의 관계는 중간 정도라 할 수 있음 (0.454, p값 0.000)

국적 · 교통수단 교차분석표 (8월)

구분		교통수단						합계	
		인천공항	김해공항	김포공항	제주공항	부산항	인천항		기타
일본	관측빈도	144,980	20,221	63,329	14,087	17,990	43	1507	262,157
	기대빈도	149,380.9	15,107.3	31,838.4	21,311.3	20,278.2	16,082.4	8,158.6	262,157
중국	관측빈도	125,045	10,159	3,330	31,126	23,563	34,297	14,467	241,987
	기대빈도	137,887.7	13,944.9	29,388.8	19,671.7	18,718.0	14,845.1	7,530.9	241,987
미국	관측빈도	49,368	1,921	1,415	353	1,804	46	1,470	56,377
	기대빈도	32,124.4	3,248.8	6,846.9	4,583.0	4,360.8	3,458.5	1,754.5	56,377
합계	관측빈도	319,393	32,301	68,074	45,566	43,357	34,386	17,444	560,521
	기대빈도	319,393	32,301	68,074	45,566	43,357	34,386	17,444	560,521

04 2) 입·출국자 상관관계분석

세부 통계분석

- 입·출국자와 환율, 물가 등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외국인 입국자는 환율, 물가와 유의적인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고 내국인 출국자는 환율과만 유의적인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남
 - 환율은 대표적으로 원/미국달러(기준환율) 자료를 사용하고 물가지표로는 소비자물가지수(CPI)를 사용

상관관계표

구분		외국인 입국자	내국인 출국자	환율	물가
외국인 입국자	Pearson Correlation	1			
	유의확률(p value)				
내국인 출국자	Pearson Correlation	-.070	1		
	유의확률(p value)	.573			
환율	Pearson Correlation	.632***	-.501***	1	
	유의확률(p value)	.000	.000		
물가	Pearson Correlation	.836***	.001	.679***	1
	유의확률(p value)	.000	.994	.000	

주1 *** 0.01 유의수준

- 변수사이의 시차별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교차상관(cross correlation)을 살펴본 결과, 특정 시점 차이에서 상관관계가 높은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상관관계가 높은 가운데 시차(lag)가 커질수록 상관계수가 적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특정 시차가 선행지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남
 - 교차상관계수는 두 개의 시계열 데이터의 시차별 상관계수를 의미

교차상관관계표

시차	교차상관계수			
	외국인입국자-환율	외국인입국자-물가	내국인출국자-환율	내국인출국자-물가
-7	.390	.479	-.134	-.042
-6	.400	.508	-.201	-.066
-5	.440	.572	-.252	-.080
-4	.474	.610	-.320	-.086
-3	.513	.647	-.391	-.073
-2	.543	.692	-.433	-.059
-1	.576	.754	-.476	-.026
0	.632	.836	-.501	.001
1	.617	.804	-.522	-.202
2	.572	.770	-.528	-.059
3	.527	.756	-.516	-.084
4	.520	.728	-.469	-.112
5	.524	.703	-.424	-.152
6	.500	.673	-.421	-.187
7	.480	.645	-.383	-.1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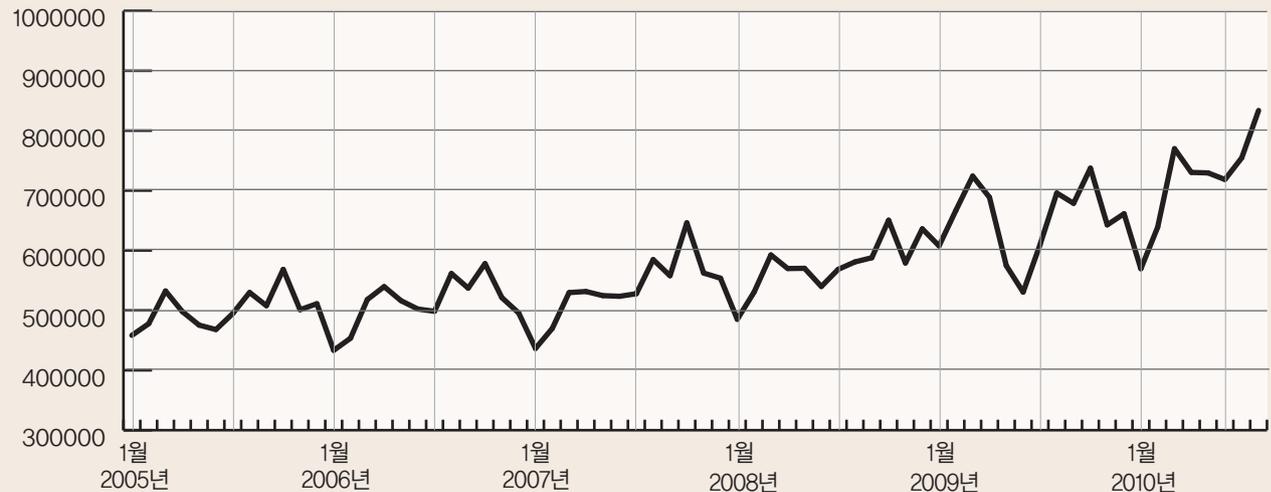
04

3) 입·출국자의 시계열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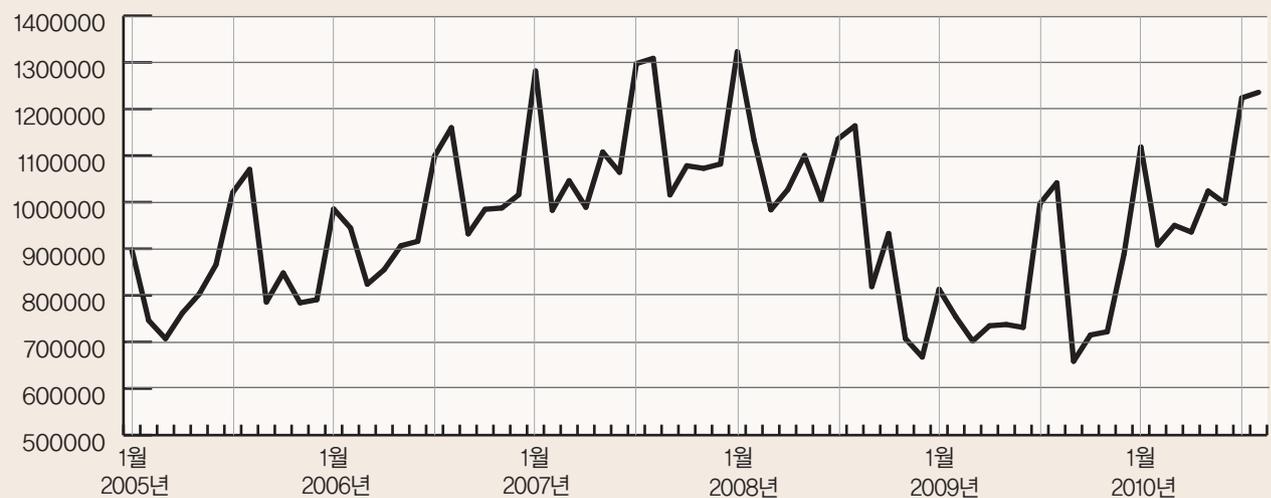
세부 통계분석

가. 시계열 그래프

- 외국인입국자수와 내국인출국자수 월별 자료는 평균 또는 분산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는 형태를 보이고 있어서 불안정적(nonstationary) 시계열자료의 특성을 갖는 것으로 추정됨
- 주기적으로 변동이 반복되고 있어서 계절적 특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남



<외국인입국 시계열 그래프(2005년 이후 월별 자료)>



<내국인출국 시계열 그래프(2005년 이후 월별자료)>

나. 변동성(volatility)

- 2008년 세계적 경제위기를 전후하여 입·출국자의 변동성에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보면 외국인 입국자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고 내국인 출국자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Levene 통계량은 두 집단의 분산이 동분산인지 아닌지를 검증해 주는 방법

변동성 차이

구분		2005년~2007년	2008년 이후
외국인 입국자	표준편차	43,987.69	82,507.84
	Levene 통계량	15.56(p값 0.000)	
내국인 출국자	표준편차	153,401.92	187,732.21
	Levene 통계량	2.38(p값 0.1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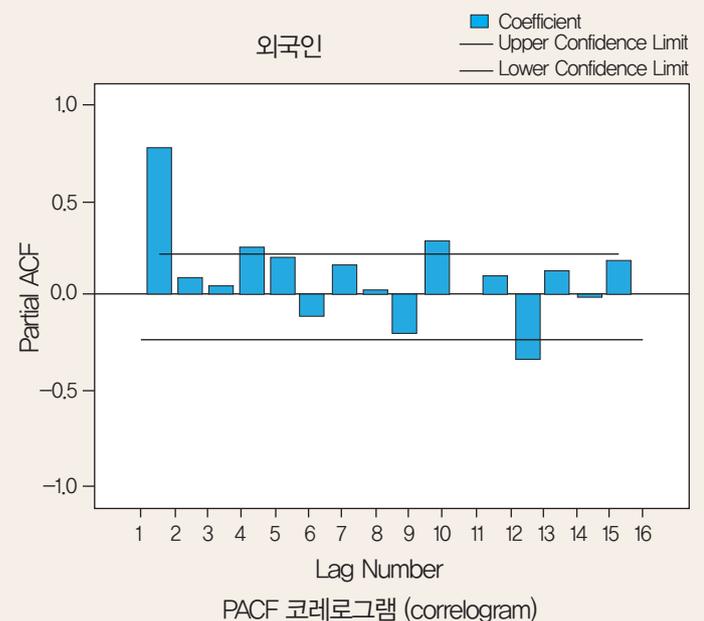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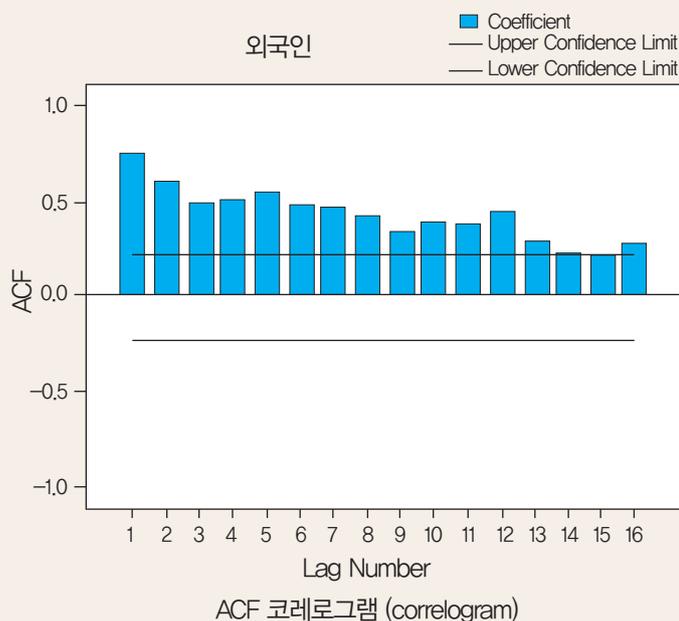
3) 입·출국자의 시계열 특성

- 외국인 입국자, 내국인 출국자 모두 계절성으로 인하여 자기상관을 갖을 것으로 사전적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자기상관계수(autocorrelation function)로 볼 때, 1차 시차부터 지속적으로 강한 자기상관을 나타내고 있음
 - 자기상관계수(ACF)는 시계열 데이터의 서로 다른 시점간(lag) 상관계수를 의미
- 외국인 입국자, 내국인 출국자 모두 자기상관계수(ACF)가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편자기상관계수(partial autocorrelation function)은 시차수 "1" 인 곳만 특히 크게 나타나고 있어서 자기회귀(autoregressive) 모형 중 AR(1) 과정을 따르는 것으로 추정됨
 - 시차 k의 변화와 무관하게 자기상관계수의 값이 뚜렷이 감소하지 않고 있어서 불안정적 시계열 특성을 보여주고 있음
 - k차의 편자기상관계수(PACF)는 1기부터 k-1기까지의 영향을 제거한 다음의 상관계수를 의미

외국인입국자 자기상관 · 편자기상관

시차	자기상관	표준오차	Box-Ljung 통계량		편자기상관
			값	유의확률	
1	.754	.119	40.341	.000	.754
2	.604	.118	66.692	.000	.085
3	.491	.117	84.351	.000	.024
4	.502	.116	103.123	.000	.246
5	.542	.115	125.303	.000	.190
6	.478	.114	142.870	.000	-.110
7	.470	.113	160.081	.000	.149
8	.425	.112	174.387	.000	.010
9	.340	.111	183.715	.000	-.200
10	.386	.110	195.940	.000	.274
11	.380	.109	207.992	.000	.001
12	.448	.108	225.068	.000	.088
13	.290	.107	232.341	.000	-.344
14	.222	.107	236.700	.000	.115
15	.208	.106	240.590	.000	-.012
16	.280	.105	247.764	.000	.1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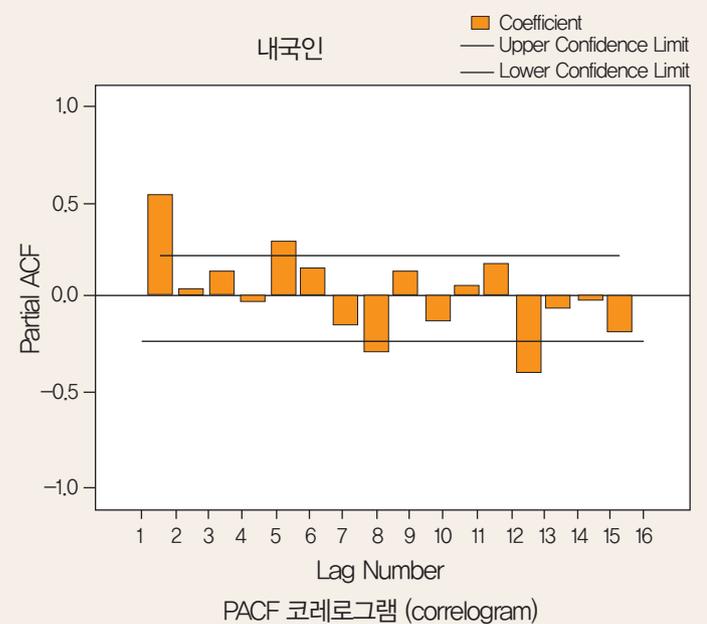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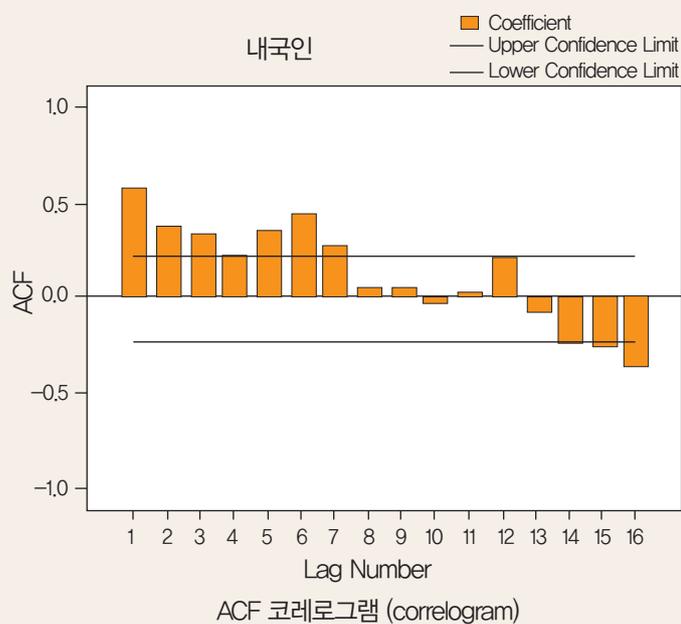
주 | Box-Ljung Q통계량은 자기상관계수가 0인지를 검증하는 방법



3) 월별 입·출국자의 시계열 특성

내국인출국자 자기상관·편자기상관

시차	자기상관	표준오차	Box-Ljung 통계량		편자기상관
			값	유의확률	
1	.618	.119	27.170	.000	.618
2	.403	.118	38.904	.000	.034
3	.347	.117	47.703	.000	.137
4	.251	.116	52.399	.000	-.032
5	.378	.115	63.216	.000	.335
6	.463	.114	79.699	.000	.159
7	.291	.113	86.308	.000	-.187
8	.048	.112	86.489	.000	-.345
9	.046	.111	86.661	.000	.146
10	-.042	.110	86.808	.000	-.165
11	.021	.109	86.846	.000	.056
12	.213	.108	90.713	.000	.194
13	-.096	.107	91.517	.000	-.476
14	-.267	.107	97.814	.000	-.074
15	-.295	.106	105.636	.000	-.025
16	-.405	.105	120.657	.000	-.219



05

서비스업생산지수

(자료원 : 통계청)

- 2010년 8월 관광분야의 서비스업생산지수는 전년동기대비 모두 증가
- 전년동기대비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2.7%, 여행사업 23.0%, 유원지 및 테마파크운영업 1.7%증가



가. 관광 숙박시설 운영업

- ▶ 2010년 8월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생산지수는 전년동기대비 2.7% 증가
 - 호텔업(8.8%), 여관업(5.0%), 휴양콘도운영업(0.3%) 생산지수 전년동기대비 모두 증가

단위 : 2005년 = 100,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5월	6월	7월	8월*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114.2(1.9)	114.8(0.6)	120.7(8.8)	118.3(8.1)	124.2(4.2)	131.5(2.7)
호텔업	120.3(4.5)	128.3(8.0)	139.4(15.0)	134.8(16.8)	138.3(11.4)	142.4(8.8)
여관업	99.2(-4.4)	95.0(-4.2)	99.5(8.5)	99.3(4.4)	97.3(0.1)	103.1(5.0)
휴양콘도 운영업	131.1(13.7)	123.5(-7.6)	115.1(-10.4)	116.7(-2.9)	142.4(7.4)	152.0(0.3)

주: 불변지수, (%)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잠정치

나. 여행사업

- ▶ 2010년 8월 여행사업 생산지수는 전년동기대비 23.0% 증가

단위 : 2005년 = 100,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5월	6월	7월	8월*
여행사업	125.6(-25.9)	93.5(-32.1)	144.1(36.1)	132.2(48.7)	142.7(30.1)	131.4(23.0)

주: 불변지수, (%)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잠정치

다.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 ▶ 2010년 8월 유원지 테마파크 운영업 생산지수는 전년동기대비 1.7% 증가

단위 : 2005년 = 100,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5월	6월	7월	8월*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109.5(11.9)	98.0(-11.5)	138.5(4.0)	92.3(0.8)	157.1(4.6)	221.6(1.7)

주: 불변지수, (%)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잠정치

● **서비스업생산지수** : 서비스업 전체 및 개별 업종의 생산활동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개별 업종의 상대적 중요도인 부가가치 기준 가중치를 적용하여 지수화한 것으로 국가의 경제정책 및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연구소의 서비스업동향 분석 및 연구자료, GDP 추계자료에 활용

● **불변지수** : 경가지수를 디플레이터로 나누어 작성하며, 월별경상매출액 중 가격 변동분을 제거하여 업종의 실질 성장을 분석하는데 이용(디플레이터: 2005년기준 생산자물가지수 및 소비자물가지수)

06

최신참고자료



● 4/4분기 한국 관광 동향 분석

- * 관광사업체 경기동향
 - 관광사업체의 업황이 호전되고 매출액은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나 수익성 및 인력사정은 부정적인 전망이 우세

	업황	매출액	수익성	인력사정
4분기(3분기*)	107(96*)	111(110*)	88(88*)	84(82*)

- * 국민 관광지출 전망
 - 국내관광의 경우는 3/4분기 보다 지출액을 줄이겠다는 의견이 우세하며, 국외관광의 경우는 3/4분기와 유사한 수준

	국내관광	국외관광
4분기(3분기*)	96(115*)	100(107*)

● 2010년 상반기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 * 최근 3년간 한국 방문 횟수는 평균 2.9회로 지난해 상반기의 3.8회보다는 다소 감소
- * 한국 방문의 주요 목적으로 '여가/위락/휴가' (47.6% → 50.0%) 비중은 소폭 증가
 - 반면 '사업 또는 전문활동' (35.6% → 33.3%) 비중은 소폭 감소
- * 목적지로 선택하는 과정에서 '쇼핑' (54.9% → 60.5%)을 고려했다는 응답 비중은 증가
 - 반면 '가까운 거리' (40.8% → 30.3%) 및 '경제적 여행비용' (43.2% → 27.3%)을 고려했다는 응답은 감소
- * '혼자' (31.7%) 한국을 방문한 응답자 비중이 가장 높고, 동반자가 있는 경우 평균 동반 인원은 4.8명으로 지난 해 상반기(4.7명)와 유사
- * 2010년 상반기 평균 체재 기간은 약 6.4박으로 지난 해 상반기(5.9박)에 비해 소폭 증가
- * 2010년 상반기 방한 외래관광객들이 방문한 지자체를 살펴보면 서울(79.4%), 경기(28.9%), 인천(15.7%), 부산(15.2%), 제주(12.3%)등의 순
- * 방한기간 주요 방문지로는 명동(53.4%), 동대문시장(44.6%), 남대문시장(36.6%), 고궁(33.8%), 남산/N서울타워(28.4%) 등의 순
- * 방한기간 주요 활동은 쇼핑(59.2%), 관광지 방문(50.0%), 식도락 관광(38.8%), 업무수행(22.8%), 휴양/휴식(8.4%) 순
- * 2010년 상반기 한국 여행 평균 지출경비는 1,258.3\$로 지난해 상반기(1,234.9\$) 대비 소폭 증가
- * 2010년 상반기 한국 여행에 만족도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지난해 상반기 대비 소폭 증가

● 9월 소비자 동향지수 (2010.9.28. 한국은행)

- * 2010년 9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여행비 부분)

	2009년					2010년					B-A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A)	9월(B)	
여행비	86	87	89	89	89	90	92	92	91	91	(-)

● 2009년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 * 2009년도 주요 관광정책 성과 및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발간